

# '열린 공군' 광주 제1전투비행단

## 교육 캠프·지역 봉사 등 대민 프로그램 활발 딱딱한 군대 이미지 털어내고 '시민 곁으로'

“군대 하면 딱딱하고 두렵다는 이미지가 전부였지만 이전 아니에요. 근데 눈이 나빠도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빨간 마후라의 품은 따뜻했다. 지난 4일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단장 양철환 준장·이하 1전비) 지상교육대대. 전투기 조종 훈련장비인 'T-50' 고등훈련기 시뮬레이터' 조종석을 예비 조종사가 아닌 어린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1전비가 주최한 '제1기 공군 리더십 비전 캠프'에 참가한 광주지역 중학생 40명이 바로 그들이다.

“어! 저기가 우리 학교예요.” 시뮬레이터에 올라 광주시내를 비행하던 정혜연(여·대자중 2년)양이 입체화면에서 손바닥처럼 보이는 자신의 학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정양의 옆에서는 학생조종사 유일의

홍일점인 차장은 중위가 친절하게 조종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안경을 쓴 정양은 조종복을 입은 차 중위의 모습에 반했는지 조종사 선발기준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비전 캠프에서는 가상 조종체험 이외에도 특수비행팀 '블랙이글'과 항공기 정비실 견학, 조종사와의 대화 등 아이들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1전비는 'Golden Eagle'(검독수리)이라고 이름 붙여진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공군부대다. 학생조종사들의 마지막 관문인 8개월간의 고등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곳으로 최종에 조종사 양성이 최대 목표지만 지역민을 위

한 공익사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군 리더십 캠프다. 지난해 초 교육대대가 창설된 뒤 일부 학생들을 초청해 견학행사를 가졌고, 큰 호응이 뒤따르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으로 발전시켰다.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광주지역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주는 것이 캠프의 목적이다.

1전비가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이번이 아니다. 올해 현재까지 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친 것만 120여차례. 병사와 장교, 군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2천2백여명의 인원이 봉사에 참가했다. 봉사활동만 놓고 보면 사회환원사업이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는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횡수가 많을 정도다.

특히 군무원단은 매달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원 등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매일 광산구 도산동 '새빛아동지원센터'를 찾아 공부를 가르치



제1기 공군 리더십 비전 캠프에 참가한 광주지역 중학생 40명이 지난 4일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교관으로부터 T-50 고등훈련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 있다. 또 항의전대는 광산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지 주변 마을을 비롯 광산구 일대를 돌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진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높은 담벽과 철조망, 전투기 소음 등으로 인해 쌓였던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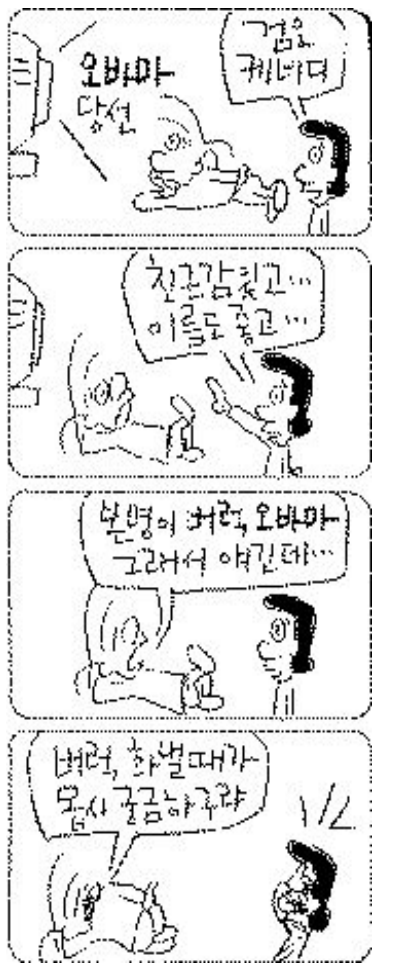
가지 주변 주민들도 대민봉사활동을 나오는 공군 병사들을 아들처럼 반기고 있고, 부

대를 찾았던 학생들도 무섭고 두려운 군 이미지에서 탈피해 '친구 같은 공군'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비전 캠프에 참가한 최명민(경신중 3년)군은 “딱딱한 말투와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만 떠오르던 공군의 이미지가 이번 캠프를 계기로 확 달라졌다”며 “나중에 대학에 진학해 군대를 가야할 시기가 찾아오면 꼭 공군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나원침 (7648) 김종두



다용도 건축·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행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진 : 061) 337-0571



평생학습 축제 제7회 광주평생학습축제가 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광주·전남지역 23개 평생학습관과 학교, 지자체 등이 참가했다. 호남대 평생교육원 '어울림무용단'이 성주풀이 공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응급진료 8시간 이상 대기

### 전국 평균보다 2시간 이상 길어...전남 2.3시간으로 가장 짧아

광주지역 응급진료의 질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전남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7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실시한 응급의료 질 지표분석에서 3대 응급질환(뇌경색, 심근경색, 중증 외상) 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 응급실에 대기한 시간은 광주지역 응급센터가 8.1시간으로 대구(8.6시간)와 전북(8.4시간)에 이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6.0시간보다 2시간 이상 길었다. 반면 전남지역 응급센터는 2.3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심장혈관이 막힌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응급실 도착 후 3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비율은 광주가 14.3%로 전국 평균 26.4%를 훨씬 밑돌았다. 전남은 62.5%로 가장 높았다. 심근경색환자에게 혈관 재개통 시

■ 시도별 응급의료 질 지표

시도	급성심근경색 혈관 조치 적절성 (%) (30분 내)	3대 응급질환 응급실 대기시간 (90분 내)	3대 응급질환 응급실 대기시간 (90분 내)	다른 병명으로 이송한 비율 (%)
서울	0.0	53.3	5.4	4.6
부산	30.8	62.5	12.1	3.5
대구	25.0	67.9	8.6	5.4
인천	42.9	61.5	3.8	3.0
광주	14.3	54.1	8.1	13.1
대전	50.0	80.0	6.4	2.3
울산	0.0	68.5	4.8	2.3
경기	41.9	56.1	6.4	3.2
강원	12.5	61.5	6.4	9.8
충북	0.0	61.5	6.4	3.2
충남	0.0	62.5	4.0	11.4
전북	0.0	69.2	8.4	9.8
전남	62.5	47.4	2.3	7.9
경북	12.5	64.0	2.4	7.6
경남	42.9	27.3	5.9	4.9
제주	사례부족	100.0	3.0	2.3
전국	26.4	61.6	6.0	5.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는 질환이라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강운태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 재판장 "법관은 신이 아니다" 이례적 심경 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무소속 강운태 의원(60·광주 남구)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는 7일 열린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는 선거운동원 서모(52)씨의 진술이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데 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자꾸 반복돼 믿을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배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강 의원의 사조직인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사무처장 반모(56)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4·9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측근 서씨에게 건넨 혐의로, 반씨 역시 서씨에게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이한주 부장판사가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토로해

논쟁을 끝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은 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 또한 신이 아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국민들 생각과 다르게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재판은 객관적 증거와 불증, 목격자 증언 등에 의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어 "지금 선고하는 이 판결이 완전히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며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의 이날 심경토로는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외지 쌀을 '홍길동 쌀'로 속여 팔아

### 장성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사건 경위 조사

장성농협이 다른 지역의 쌀을 한때 장성의 대표 쌀 브랜드였던 '홍길동 쌀'로 포장·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장성농협은 지난달 15일 부안의 한 업체로부터 20kg들이 쌀 100포대를 사들인 뒤 '홍길동쌀' 포대에 담아 서울 등지에 포대당 4만원에 판매해 혐의를 받고 있다.

'홍길동쌀'은 지난 2004~2006년 장성군의 공식 쌀 브랜드로 판매됐으나 장성군이 2007년 '365생' 등으로 브랜드 명칭을 바꾸면서 지난해까지 유통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장성농협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장성군도 현재 7개 단위 농협에 남아 있는 홍길동쌀 포장지를 회수, 폐기하기로 했다.

장성농협 관계자는 "거처에서 값이 싼 쌀을 보내달라고 해서 직원이 실수로 다른 지역의 쌀을 담아 판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민원 해결' 금품 챙긴 경찰관 징유 선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양형권 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와 관련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해 200만 원을 받고 '나중에 술집 열면 잘 봐주겠다'며 100만원 상당의 옷을 대신 사주도록 요구한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경찰의 명예를 손상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환경재단 압수수색 최열 대표 출석 통보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최열 씨가 대표로 있는 환경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환경련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련 사무총장 출신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13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15명을 서울 중구 환경재단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 12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 지명수배 모르고 경찰서 행 달미

○"자신이 지명수배자인 줄도 모르고 친구 따라 경찰서를 찾은 30대 여성이 경찰의 출입자 검문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K(여·30)씨는 7일 오후 3시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북부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던 중 정문에서 근무 중인 북부경찰 소속 의경에게 출입자 검문을 받았다는 것.

○"K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 일경에게 건넸고 컴퓨터 조회결과 사기 5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바람에 현장에서 불참했는데, 경찰에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친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다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왔다"고 진술.

○"한편, 북부경찰은 이날 K씨를 지명수배한 광주북부경찰로 신병을 인계.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프라이름 그룹 비자금 李 前 국세청장 유입"

프라이름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7일 프라이름그룹 비자금 일부가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라이름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이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씨 측근인 건설업자 K(50)씨로부터 확보했다고 지난 6일 K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 "5·18묘지 참배는 쇼에 불과"

5·18기념재단, 서울교회에 사과 재촉구

참배한 장모들의 행태는 최소한의 유감의 뜻조차 드러내지 않는 시늉에 불과했다"며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념재단은 "왜곡발언의 당사자인 이종훈 목사는 오는 16일까지 주일예배의 설교를 통해 왜곡 사실을 바로잡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침 안개 주의  
남해안은 비가 온 후 오전부터 개개고, 그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았다.

11월 8일 (음 10월 11일) 날씨

광주	구름 많음	11~18°C
포항	구름 많음	11~17°C
안동	흐리고 한때 비	10~19°C
원주	흐리고 한때 비	12~18°C
구례	구름 많음	19~20°C
해남	구름 많음	11~18°C
장흥	구름 많음	10~18°C
홍천	흐리고 한때 비	10~17°C
순천	구름 많음	8~18°C
영광	구름 많음	8~18°C
진도	구름 많음	12~18°C
전주	구름 많음	9~18°C
남원	구름 많음	8~18°C
홍산도	구름 많음	12~15°C

서해남부 앞바다=북~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북동풍 파고 0.5~2.0m  
남해남부 앞바다=북~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9:27 썰물 < 03:06  
목포 밀물 < 22:02 썰물 < 15:13  
여수 밀물 < 05:04 썰물 < 10:53  
여수 밀물 < 17:32 썰물 < 23:48

▲대출 07:00 ▲해질 17:32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날씨						
최저/최고	7/16	6/17	6/17	6/18	8/19	8/17

# 찌푸린 주말·휴일 남해안 지역은 비

주말인 8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어 흐릴 것으로 보이며 남해안 지역은 비가 온 후 꺾 것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으며 여수·완도 등 남해안 일부 지역은 비가 온 후 개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며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7~19도로 예상했다.

휴일인 9일 광주·전남지역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 기온은 전날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7~19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